

호남대 양승학 단장,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 위촉



호남대 양승학 LINC+사업단장이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양승학 단장은 임기 2년동안 지역 내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 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조정하는 거버넌스 역할과 인력양성 및 고용 서비스 지원계획을 시행해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광주지역산업계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라는 목표로 운영되며, 임기는 2021년 3월까지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박남규씨, 환경교육분야 교육부장관상



광주시 환경직 공무원으로 활동한 박남규(사) KPO명강사협회 전문강사가 '제14회 2019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환경교육 분야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위원장 이규용)과 미려한재단(대표이사 최영진)이 주관한 '제14회 2019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을 열고 박남규 강사와 김병두 충북단양중 교사 2명에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했다.

박씨는 광주시 환경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환경 보호업무에 힘썼고, 정년퇴직 후에도 환경관련 기업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방식으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환경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상인 분상 21명, 정부포상 15명 등 모두 36명이 최종 선정돼 시상대에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승현 전남대 총동창회장 대학발전기금 2억원



박승현(왼쪽에서 세번째) 전남대 총동창회장이 최근 모교인 전남대를 찾아 정병식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2002년부터 총 6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전남대 제공>

광주보훈병원 음악회 등 32주년 개원행사 풍성



광주보훈병원(병원장 김재후)은 최근 제 32주년 개원행사를 열었다. 보훈병원은 이날 '악사불 점안 봉축 문화 행사'에 이어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보훈병원 제공>

“어촌은 가능성 무궁무진…다시 청춘됐죠”

완도 생일로 귀어 5년차 양식장·펜션 운영 신증근씨



섬 애호가들이 숨겨놓고 찾아간다는 완도 생일로. 해발 482.6m 백운산은 생일도의 자랑거리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일로 백운산 산행을 해봤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날 좋을 때 백운산에 오르면 청산도부터 제주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생일로 생활 5년차인 신증근(61·사진)씨가 인생 2막의 타전을 이곳으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씨는 전북, 미역, 다시마를 양식하면서 펜션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의 귀어가 ‘모범 사례’가 된 것은 이웃과 허물 없이 지내는 친화력 덕분이다. 신씨는 “쉽 게 닿지 않는 곳에 대한 선망도 있었지만 섬 마을 주민의 순박한 인심을 느낄 수 있어 생일도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신씨의 고향은 경기도로, 생일도와 아무 연고도 없다. 울산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던 신씨는 IMF 외환위기 때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안정된 직장생활을 뒤로 하고 지인의 권유로 경기도 가평에 수목원을 열었다. 평소 자연 생활을 꿈꾸던 그에게 안정맞춤인 사업

친화력 무기로 동네 일꾼 자처

1년만에 어촌계원 자격 얻어

전북·미역·다시마 양식에

펜션·식당 겸업…하루해가 짧아

“항칠나무 가공산업 도전할 것”

이렇지만 일은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 형편이 어려워진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일용직으로 여러 번 일을 나가기도 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50대 후반에 만난 곳이 생일도다. 어촌생활에 관심이 있던 그는 관광객이 늘면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생일도가 마음에 들었다. 생일도에는 음식점, 편의점, 당구장이 있고 최근 중국음식점도 20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신씨의 아내(53)는 섬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흔쾌히 찬성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었다.

신씨 부부의 어촌생활이 계속 순풍을 탄 것은 아니다. 4년 전 빗을 내 펜션 사업을 시작한 탓에 살림이 팍팍해지기도 했다. 그는 “귀어 초기 자금이 꽤 들었지만 아내와 함께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투자라 후회는 없

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고령자가 많은 섬 마을에서 신씨는 일꾼을 자처했다. 그는 처음부터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웃의 일을 도왔다. 주민들은 차츰 신씨의 진심을 알고 그의 어촌 생활을 돕기 시작했다. 신씨가 이례적으로 귀어 1년 만에 어촌계원이 된 것도 주민들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시작한 양식업이 빨리 안정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이웃의 도움 덕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부지런한 그의 도전은 끝이 없다. 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쓸 만큼의 수산물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다른 작물 재배에 관심이 많다. 항칠나무를 키우는 그는 지난해 완도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진행한 ‘항칠·비파 융합형 가공기술’ 연수과정을 마쳤다. 신씨는 “완도는 항칠 주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1, 2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다”며 “항칠산업을 체험·관광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키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생일도는 도시생활에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최적의 섬”이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귀어를 꿈꾼다면 누구든 새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며 조언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자연에서 느끼는 ‘환경의 소중함’

국제청소년교육재단, 초등생 ‘전국 환경체험 나비캠프’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강열) 전남 자연환경연수원(원장 안기권)은 28일까지 이틀간 ‘제12회 전국 환경체험 나비캠프’〈사진〉를 열었다.

이번 캠프에는 강원도 자연학습원과 경남 환경교육원, 전남 자연환경연수원에서 모집한 초등학생 100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나비 에코백 만들기를 비롯한 친환경 배지 만들기, 꽃나비 부채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즐기고 합

평 나비축제를 견학했다.

캠프에 참가한 안혜원(순천 신흥초 6년)양은 “나비의 종류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새로운 친구들과 캠프파이어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나비캠프는 청소년들에게 환경 축제 행사를 탐방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가수반 ‘연봉 킹’은 싱가포르 리셴룽

美언론 달러기준 연봉 집계 161만달러 …트럼프 4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국가 수반은 싱가포르의 리셴룽(李顯耀) 총리로 조사됐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은 상위 4번째였다.

28일 미국 일간 USA투데이 등의 집계를 보면 세계 각국 수반이 받는 연봉을 미 달러(작년 4월 환율 기준)로 환산한 결과, 상위 20인의 연봉이 22만달러(약 2억6000만원)에서 161만달러(약 18억7000만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1위인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의 18배를 넘는 161만달러를 연봉으로 받는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연봉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램 행정장관의 연봉이 1인당 GDP의 10배인 56만8400달러(6억 6000만원)로 리셴룽 총리의 뒤를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1인당 GDP의 7배인 40만달러(4억6000만원)를 받는다.

이 신문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절대 군주제 국가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제외했다.

/연합뉴스

고려인이 러시아어로 옮긴

이순신 장계 32년만에 출간

러시아에서 활동한 고려인 학자인 인노첸치 아바노비치 황(한국명 황동민·1912~1985)이 생전에 러시아어로 번역한 충무공 이순신 장계(狀啓)가 사후 32년 만인 2017년 여름 출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한 한국학 연구자 올레그 피로젠코(41)씨는 충무공 탄신일인 28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동양문화출판사’로부터 인노첸치 황의 번역 원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업을 마무리해 2년 전 총 3권으로 간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소외계층 2000명 무료상해보험

전남우정청 29일부터 신청 접수

전남지방우정청(청장 홍만표)이 광주·전남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2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우정청은 “소외계층을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29일부터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소외계층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총괄우체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촉

▲장대학·길정후씨 장남 용호군,최광일(대명엘리베이터 사장)·양승석씨 장녀 유리양=5월4일(토) 낮 12시 광주웨딩그룹 위더스 5층 열린홀 062-364-1234

▲최현관·고 김미숙씨 아들 선우군, 오복자(뜰안재 대표)씨 딸 민애양=5월4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임박울대로 드메르웨딩홀 4층 리비엔홀 062-228-0000.

알림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3 FAX 062-222-4938, 222-4918

▲북구열린마을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 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정신건강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의·주·주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콜센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교통편은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아르산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김현아(CMB광주방송 보도제작팀 파트장)씨 별세=발인 29일(월) 오후 2시 광주 스키아장레식장 202호 062-95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신관 3층 특302호故최순심 님(여/82세) 子/子婦: 박성용, 형중/김신영 女/婿: 박영신 夫君: 박동은 ◇입관: 4/29 13:00 ◇발인: 4/30 08:00 ◇장지: 순천중앙선영(화) ◇연락처: 250-4472	본관 2층 특9호故이경순 님(여/83세) 子/子婦: 정순갑/박충희, 영갑/이희순 夫君: 정순호 女/婿: 정선숙/강성진, 선숙/이두선, 선희/최종갑 夫君: 박동은 ◇입관: 4/28 11:00 ◇발인: 4/29 08:30 ◇장지: 고충룡안면선영(매) ◇연락처: 250-4409
신관 2층 VIP예궁故안정에 님(여/82세) 子/子婦: 이성순, 김로두/민금아, 호상/최영애 女/婿: 김효임/이선복, 선미/이관학 ◇입관: 4/29 13:00 ◇발인: 4/30 08:30 ◇장지: 영락공원(매) ◇연락처: 250-4470	본관 3층 특12호故김정빈 님(남/80세) 子/子婦: 김/명/이미성, 문성 女/婿: 김인영, 인자/송희봉, 은화/이동영 ◇입관: 4/28 10:00 ◇발인: 4/30 08:30 ◇장지: 고충룡안면선영(매) ◇연락처: 250-4412
본관 4층 VIP정공故전양길 님(여/96세) 子/子婦: 장운길/김천영, 선길/김순안, 한길/조상에 女/婿: 장신례/김석중, 정례, 근례/최의준 夫君: 박영주 ◇입관: 4/30 09:00 ◇발인: 5/1 07:00 ◇장지: 영락공원(화) ◇연락처: 250-4413	본관 2층 특7호故김매자 님(여/91세) 子/子婦: 박성환/김옥자, 인환/선정임, 민환/김정순 女/婿: 박영자/정경채, 영혜/서한호, 영미 ◇입관: 4/27 11:00 ◇발인: 4/29 08:00 ◇장지: 함평윤선영(화) ◇연락처: 250-4407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회장 김 영 관

24시 대기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